



제10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 10월 1일부터 개최 ‘책이란 무엇인가’ 주제로 5일간 흥대 일원서

제10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이 ‘책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서울 마포구 흥익대 앞 주차장 거리 일대와 대안공간, 카페 등에서 10월 1일(수)부터 5일(일)까지 5일간 개최된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사)와우책문화예술센터가 주최하는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은 흥대 일대를 거점으로 출판계와 작가, 문화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시민들이 책을 매개로 하나가 돼 어우러지는 국내의 대표적인 책문화예술축제다. 국내 대표 출판사 100여 곳이 참여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서울문화재단 등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올해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은 10주년을 맞아 ‘책의 초심’으로 돌아가 거리에서 책을 이야기한다. 책 읽기가 사적 공간에서 고립적으로 이뤄지는 행위가 아니

라 광장에서 이야기 나누는 공적 놀이가 될 수 있음을, 또 책이 상품으로만 유통되는 게 아니라 음악, 미술, 연극 등 온갖 예술장르와 어우러지는 상상력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시도한다. 서울와우북페스티벌 관계자는 “올해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은 ‘거리로 나온 책’이라는 기획에서 시작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듯이 본디 철학은 거리에서 이뤄졌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생각을 있고, 느낌을 있고, 관계를 잇는 향연이었다.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은 흥대 주변의 출판산업과 문화예술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진지하지만 무겁지 않게, 유쾌하지만 가볍

지 않게, 책의 사회적 역할을 실천하고 책이 주는 선물을 향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와 술 그리고 셰익스피어를 만나다

‘와우판타스틱서제’는 열린 문화 공간을 통해 저자와 대중이 교감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심토크, 술을 사랑한 작가들, 연극강연 셰익스피어450:나를 기억하라 등이 진행된다.

‘시심토크’는 오는 10월 3일 오후 6시부터 KT&G 상상마당 4층에서 열린다. 황현산 문학평론가와 김소연, 심보선, 황인찬 시인과 시를 사랑하는 독자를 초대



제10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 포스터

해 '책'이라는 주제로 시담을 나눈다. 마음을 사로잡은 시, 처음으로 쓴 시, 돈 주고 산 첫 시집 등 저마다의 '책' 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시를 낭독한다. 또한 참여자에게 시 한편 혹은 시 한 구절을 적은 소책자를 나누며 좋은 시를 함께 읽고 공유한다. 소책자를 받은 이들은 한 페이지를 뜯어 친구에게 선물하거나 지갑에 넣고 다니는 등 일상에서 시의 순환을 도모할 수 있다.



1. 와우북페스티벌 행사 전경 (7회 행사때 열린 알랭드부통 시인 전 전경)
2. 홍익대 인근에서 열린 거리도서전

‘술을 사랑한 작가들’은 오는 10월 2일 오후 7시 30분 출판사 자음과모음 5층에서 열린다. 유명한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는 평생 글 쓰는 일과 술마시는 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중국 시인 두보 역시 동서고금 모든 작가들이 술에서 작품이 탄생한다고 증언한다. 칼럼니스트 임범에게 술이란 무엇인가를 배우고, 소설가 백가흠과 시인 임경섭에게 술을 사랑한 작가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다.

‘연극강연 셰익스피어450: 나를 기억하라’는 오는 10월 5일 오후 1시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에서 열린다. 올해 탄생 450주년을 맞은 셰익스피어가 왜 우리 시대에도 중요한 작가인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우리 시대의 화두인 ‘기억’의 문제를 중심으로 햄릿을, 또 다른 화두인 ‘부채’의 문제를 중심으로 베니스의 상인을, 두 작품 모두를 아우르는 ‘복수’의 문제를 강연과 연극으로 풀어낸다.

국제출판문화포럼 “책읽기는 혁명이다”

부대행사로 10월 4일 오후 2시부터 KT&G 상상마당 4층에서 국제출판문화포럼이 열린다. ‘책읽기는 혁명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사상가로 초청된 사사키 아타루와 한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관해 특유의 상상력과 문체로 탄탄한 문학세계를 구축해 온 소설가 손흥규가 만나 재난시대의 읽기와 쓰기, 문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이 자리에는 철학자 고병권, 문학평론가 함돈균, 시인 김소연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와우거리도서전’에서는 빠르게 회전하는 출판시장에서 묵묵히 작고 강한 책을 만드는 1인 출판사들을 위한 특별기획 부스를 마련하고 ‘1인 출판사 릴레이 강연’을 총 7회에 걸쳐 선보인다. 이 밖에

도 ‘책에 관한 책’을 모아놓은 특별기획 부스도 마련된다.

‘와우상상만찬’에서는 ‘밀양을 살다 사진전’, 어린이책 작가들의 한뼘 그림책 ‘세월호 이야기’ 전 등을 마련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주목하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G



*주요 프로그램 일정표

서울와우북페스티벌 10주년 개막식
3일 18:30 / 야외무대

콘서트 와우 WOW!
4일 19:30 / 야외무대

서울와우북페스티벌 10주년 기념전시회
1일~5일 / 마포디자인출판진흥지구협의회

시심토크
3일 18:00 / KT&G상상마당 4층

술을 사랑한 작가들
2일 19:30 / 자음과모음 5층

좋은 사람과 좋은 글의 관계
3일 15:00 / KT&G상상마당 4층

밀양기록프로젝트
1일~3일 | 서교예술실험센터 지하
한금선, 안미선, 김일란

연극강연 “나를 기억하라”
5일 13:00 /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1인출판사 ‘백인백책’ 저자 릴레이강연
1일~5일 / 마포출판진흥지구협의회

황덕호가 들려주는 재즈보컬 이야기
2일 19:30 /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버티는 삶에 관하여 북콘서트
3일 16:00 / 야외무대